

# 광복 전 재만 조선인 문학의 성격 및 특성

--소설문학을 중심으로--

오상순(중국·중앙민족대학교 교수)

우리 민족이 중국 땅에 이주하여 거친 만주 땅에 첫 쟁이를 박은 지도 어언간 100여 년이 되었다. 나라를 잃고 살길을 찾아, 또는 독립운동을 위하여 중국 만주 땅에 발을 붙인 그 날부터 우리 민족은 황량한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에 성공했고 중국 청 정부, 봉건군벌, 일제 등이 중삼중의 억압 속에서도 제 2의 고향건설과 정착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독립운동에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귀중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역사상 지워버릴 수 없는 기여를 하였다.

파란만장한 중국조선족의 역사와 더불어 조선족문학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광복 전,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문학인들은 붓을 꺾지 않고 민족의 삶을 끈질기게 파헤쳐 문학에 담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를 증명하여 왔다.

## 1. 광복 전 문학의 이중적 성격

중국 조선족문학은 중국문학의 한 부분인 동시에 세계 조선민족 문학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 조선족문학은 중국의 사회환경과 지리환경, 그리고 민족역사의 계승성과 민족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국문학과 밀착된 특수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

이로부터 조선족문학의 기원, 성격, 작가범위를 확정하는데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작가범위 문제에 대하여는 무릇 중국에서 출생하였고 중국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조선인 작가는 다 중국 조선족작가의 범위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출생지원칙의 견해, 비록 중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창작활동을 하다가 중국에서 사망된 작가는 조선족 작가범위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사망지 원칙의 견해, 중국 땅에서 생활한 작가와 그의 작품, 중국 땅에서 벌어진 조선인들의 문학활동은 중국조선족의 문학사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속지주의 견해, 중국 땅에서 나온 문학작품이지만 한국인들에 의해 창작된 만큼 한국문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속인주의 견해, 이밖에도 출판지 원칙, 혈통주의 원칙, 언어주의 원칙, 국적주의 원칙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한국과 조선의 학자들은 속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방 전 중국지역에서의 조선인들의 문학을 모두 한국문학이나 조선문학에 귀속시키고 있고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출생지 원칙, 사망지 원칙,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광복 전 중국 땅에서 벌어진 모든 문학활동을 모두 중국 조선족문학에 귀속시키고, 만주에서 발표되지 않고 만주에서 창작되지 않았지만 만주에서 생활했고 만주생활을 반영한 작품도 조선족 문학에 포함시키는 경우이며 일부 학자들은 속지주의 원칙과 출판지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창작되고 중국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조선족문학의 기원에 대하여는 대체로 세 가지 견해, 첫째는 우리 민족의 이주초기부터 보는 견해이고 둘째는 30년대 문학동인단체 "북향회"의 설립으로부터 보는 견해이고 셋째는 중화인민공화국성립,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선족이 중국국적에 가입한 때부터 보는 견해이다.

사실상 광복 전 중국에서 벌어진 조선인들의 문학활동은 그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형성과정이나 범위를 자로 금 굵듯이 확정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조선족의 형성과정은 조선인→망명인·개척민→재만조선인→조선족으로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듯이 조선족문학의 형성과정도

한국문학→망명·개척민문학(독립운동)→재만조선인문학(반일투쟁)→조선족문학(해방전쟁)으로 볼 수 있다. 이주초기--1930년까지의 문학은 거의가 한국문학의 연장선에서 국권회복, 독립운동을 둘러싸고 이루어졌고 1931년--1945년의 문학은 만주국 건립과 함께 반일투쟁을 둘러싸고 더욱 많이는 중국생활과 밀착되면서 이민, 개척민문학으로, 한국문학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1945년 이후의 문학은 토지개혁, 해방전쟁을 둘러싸고 완전히 중국생활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조선족문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작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방 전 작가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에서 문학활동을 하다가 상해, 북경 등 지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다가 중국에서 생애를 마친 망명작가들, 둘째는 30--40년대에 만주를 무대로 문학활동을 하다가 광복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간 '문화부대'의 작가들, 광복 전 줄곧 중국에서 문학활동을 하였고 광복 후 이 땅에 뿌리내린 향토작가들로 갈라 볼 수 있다.

작품적 측면에서 보면 이주초기의 구전문학은 한국전래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개작하여 변이된 것, 새롭게 창조한 것으로 갈라 볼 수 있고 독립운동, 반일투쟁 시기 창작된 문학은 고국과 함께 창조한 것이고 '망명문단' 문인들에 의해 창조된 문학도 크게 네 가지 부류, 즉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지면에 중국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발표한 것, 먼저 "한국 국내지면에 발표되었다가 만주국의 지면에 전래된 것,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한국지면에 발표한 것,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한국지면에 중국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발표한 것 등으로 갈라볼 수 있다. 이밖에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지면에 한반도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발표한 것과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중국지면에 한반도생활을 반영한 작품의 예도 있다.

소설분야만 보더라도 신채호는 1910년--1920년대에 중국에 망명해있는 동안 "꿈하늘", "용과 용의 대격전" 등 낭만주의소설과 적지 않은 역사소설들을 창작(미발표)했는데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국권회복, 한민족의 독립이란 문제를 기본주제로 반영하고 있고 최서해는 1917년부터 1923년까지 중국 간도에서 생활하면서 갖은 인간고를 겪다가 1923년에 귀국하여 "탈출기", "박들의 죽음", "기아와 살육", "홍염" 등 간도체험을 바탕으로, 간도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조선지면에 발표했다. 주요섭은 20년대에 상해에서 공부하면서, 상해를 무대로 사회의 최하층에서 허덕이는 당시 근로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인 "인력거군", "살인", "개밥" 등 작품들을 창작하였고 30년대 북경 보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사랑손님과 어머니", "추물", "아네모네의 마담", "봉천역식당" 등 중국과 한반도를 무대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모두 한국지면에 발표했다. 최상덕은 1920년대에 중국에 이주하여 광복전야까지 상해 등지에서 문화사업을 하면서 이미 20년대후반기에 중편소설 "유린", 단편소설 "유모", "바보의 진노", "조그마한 심판" 등 중국이나 한반도를 무대로 최하층인간의 형상을 창조하여 불의의 현실을 고발한 소설들을 창작하였는데 모두 한국지면에 발표했다. 강경애는 전반 창작생애를 거의 용정에서 지내면서 1930년대에 3편의 장편소설과 10여 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하였는데 단편 "채진", "축구전", "원고료 2백원", 중편 "소금" 등은 만주에서 창작하고 만주생활을 반영했지만 발표는 한국지면에 발표했고 장편 "인간문제", 단편 "지하촌", "산남", "해고" 등은 만주에서 창작했지만 한반도의 생활을 반영했고 발표도 한반도에서 했다. 김광주의 "남경로의 창공", "북평서 온 령감", "애지--이쁜이의 편지", 최명익의 "장삼리사", "심문" 등 작품들은 모두 중국에서 창작되고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 지역을 무대로 우리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였는데 발표는 모두 한국지면에 했다. 박계주는 용정에서 출생하여 1930년대에 문단에 데뷔하여 "민성보"에 적지 않은 작품을 발표하였고 1934년부터 한반도에 나가 계속 문학활동을 하였는데, 1940년대에 창작한 "치녀지", "사형수", "육표", "모토" 등 작품들은 북간도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수난의 생활을 소설화하였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조선에서 창작되고 조선지면에 발표되었다. 안수길의 장편 "북향보", 중편 "벼", 단편 "호가네 지팡이"는 만주에서 창작하고 만주에서 발표하고 만주 이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했지만 "4호실", "한 여름밤"은 만주생활을 반영한 것이 아니지만 만주에서 발표되었다. 현경준은 1930년대 후반기에 중국에 이주하여 광복 때까지 거의 도문에 있으면서 많은 소설들을 발표하였는데 장편소설 "선구시대", 중편소설 "류맹" 등은 만주생활을

반영하였고 만주지면에 발표되었는가 하면 "오마리"같은 작품은 한반도의 생활을 반영하였고 발표도 한국지면에 했다. 박영준은 1930년대에 중국 만주에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문학창작을 하였는데 장편소설 "쌍영"은 "만선일보"에 연재되었지만 만주생활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중독자"는 만주생활을 반영했지만 한국지면에 발표했다.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창작과 발표도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만조선인작품집 "싹트는 대지" 같은 것은 '현지주의원칙'에 근거하여 "현지작가의 현지취재, 현지작품의 현지발표"로 한정되었고 "만선일보" 학예 면에 발표된 작품들도 현지작가의 작품이 아닌 경우와 현지생활을 반영하지 않은 작품들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있다. 때문에 해방 전 문학을 취급함에 있어서도 어떤 작가와 작품들이 망라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복잡하게 나선다.

따라서 문학은 현실생활에 대한 예술적인 반영으로서 이 시기 국권회복, 민족독립이란 기본주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독립계몽문학, 반일·망명 문학이 물론 조선문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반영된 생활은 많이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과 반일운동에 대한 반영이고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은 고국 국민들의 사상과 정서, 의지를 반영한 동시에 당시 중국에 이주한 조선인 이주민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대로 대변했다고 할 수 있고 중국에서의 작가의 체험과 정서를 작품화하였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주초기-- 광복 전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조선인들의 문학은 이중성격을 띠는 문학이며 과도기의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주초기--1945년의 문학은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한반도문학과 중국조선족문학에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광복전 이주민문학이 한반도 문학과 구분되는 자기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 "북향회"의 성립으로부터 "만선일보"를 통한 본격적인 문학활동에서인바 이 시기 작품들에서는 만주라는 새로운 풍토를 배경으로, 우리 이주민, 개척민들의 피눈물나는 역사와 그들의 희노애락을 반영하면서 본토문학과는 현저히 구분되는 이주민문학 또는 개척민문학을 형성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19세기말--1920년대에 유린석, 김택영, 신정, 신채호 등 적지 않은 한반도의 애국지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은 창작하였는데 그들의 창작활동은 하나같이 국권회복--한반도의 독립이라는 기본문제를 반영하였고 중국에서의 그들의 문학활동은 한반도에서의 문학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고 이주민문학 또는 개척민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세계를 형성·구축하는데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1940년대 중국 만주를 무대로 문학활동을 한 김창걸, 이육, 운동주, 안수길, 강경애, 현경준, 박영준 등 작가들은 우리 이주민, 개척민의 한사람으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주민들의 입장과 시점에서 그들의 생활과 운명, 감정과 정서를 반영하면서 조선문학과 구분되는 자기의 독자적인 문학공간을 개척해나갔다. 바로 염상섭이 종합소설집 "싹트는 대지"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그속에서 호흡하고 그속에서 살찌고 기름진 시혼(詩魂)이 날을수 있는 만주조선인의 문학"이며 "선구자로서의 '간민', 개척자로서의 선진을 위한 대변이요", "조선문학의 어느 구석에서도 엿볼수 없는 대륙문학, 개척자의 문학의 특징과 신선미(新鮮味), 신생면(新生面)을 발견할 수 있는" 문학인 것이다.

사실상 조선인 소설문학도 1930년대 초의 "북향"지와 "만선일보"의 학예 면에 발표된 소설문학, 그리고 종합소설집 "싹트는 대지", 안수길 창작집 "북원"에서 비로소 조선족의 백년사와 밀착된, 이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이민사, 고난의 개척사 및 빛나는 혁명투쟁사를 반영하면서 조선문학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 2. 광복 전 소설문학의 주제적 특성

## 1) 수난의 현실에 대한 고발의식

이 시기 '만주'는 나라 잃은 우리 겨레가 살길을 찾아 모여든 이국적인 삶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당시 일제 통치하의 '만주'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혼란하고 암흑한 사회였고 그러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이주민들의 생활 또한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극적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만주생활을 반영한 이 시기 소설은 거의가 일제식민통치하의 만주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는 계급간의 모순, 민족내부의 갈등, 민족간의 대립과 배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창걸의 "무빈골전설", "소표", "두번째고향", 안수길의 "벼" 등 작품들에서는 의지할 곳 없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우리 민족 이주민들을 갖은 방법으로 기만하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수탈하고 압박하는 당지의 지주, 관청, 순경, 집사대, 군대들의 죄행과 부패한 만주현실을 고발하고 있고 안수길의 "새벽", "원각촌", 박계주의 "육표" 등은 동족인 얼퇴놈들이 중국관청을 등에 업고 동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반민족주의와 비인간주의를 고발하고 있고 신서야의 "새벽", 박계주의 "처녀지", "모토", 김창걸의 "강교장", 현경준의 "류맹" 등은 '왕도낙토', '오족협화'를 부르짖는 위만주국의 허울을 까밝히면서 일제의 침략본질을 고발하고 있고 황건의 "제화", 김창걸의 "청공", 강경애의 "마약", 박계주의 "모토", 박영준의 "중독자", 최명익의 "심문", 현경준의 "유맹" 등 작품은 나라 잃고 혹은 민족독립을 위하여, 혹은 살길을 찾아 '만주'에 들어왔다가 부패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고 타락하는 인간들의 운명을 통하여 최악의 원흉 일제를 타매하고 있고 김창걸의 "소고기", 김국진의 "설", 안수길의 "장", "함지쟁이 영감", 김희곤의 "泥醉", 김창걸의 "마리아", 김광주의 "애지--이쁜이의 편지", "복평서 온 령감" 등 작품은 일제의 잔혹한 탄압과 수탈로 고국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중국 땅에 이주하여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유리결식하고 가난 속에서 헤매는 참담한 현실을 그리면서 현실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시기 대부분의 소설들은 살길을 찾아 만주에 왔다가 갖은 압박과 착취, 약탈과 멸시 속에서 고통받고 타락하고 미치고 죽어 가는 이주민들의 삶을 통하여 일제통치하의 만주현실을 폭로·비판하고 있다.

## 2) 수난의 만주생활에 대한 비극의식

일제의 침략으로 조상의 뼈가 묻힌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벌써 인생의 크나큰 좌절이며 비극이다. 이 시기 대부분 소설들은 바로 일제 침략 하에 살길을 찾아 떠나야 했고 낮은 만주 땅에서도 일제의 가혹한 통치를 받아야 했고 중국관헌의 탄압, 원주민들의 멸시와 배척, 마적의 약탈, 동족 얼퇴 놈들의 악행 등 갖은 수난을 감당해야 했던 우리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생활과 운명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리면서 강한 비극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새벽"에서 살자고 만주 땅에 찾아왔다가 동족인 얼퇴 놈 박치만의 간계와 압박에 누이는 목을 베여 자살하고 어머니를 미치고 아버지는 못매를 맞으며 무참하게 당하는 '나'의 가족의 참상, "벼"에서 만주 원주민들의 배척과 적대시로 익수는 원주민들의 못매에 젊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 중국관헌의 구축의지로 학교가 불타고 맨손의 이주민들은 총부리 앞에 맞서야 했던 처절한 정경, 기사년 흉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해 살길을 찾아 중국에 왔으나 중국인 지주 무빈의 간계와 박해로 김서방은 총에 맞아죽고 그 아내는 목메어 자살하는 "무빈골전설"에서의 김서방 부부의 참상, 자기 소를 가지고도 억울하게 벌금을 당하고 피투성이 되도록 못매를 맞아도 하소연할 곳 없는 "소표"에서의 영삼이의 억울한 처지, 나라를 빼앗아가고 우리 민족을 불구덩이 속에 처넣은 일제에 대한 증오와 저항 때문에 일제의 박해로 비참하게 죽고 마는 "전형"에서의 전형, 살아가기 위하여 소금밀수를 한번 하다가 집사 대에 걸려 놀란 것이 병이 되어 어린 자식들을 두고 불쌍하게 죽은 "추석"에서의 김서방 아내와 그 가족의 비참한 생활 등 그야말로 작품 하나 하나가 피눈물나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또한 "암야"에서 이주민의 딸 고분이와 명손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고분이의 아버지는 빛 재촉에 못 이겨 고분이를 늙은 윤주사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이며 "추석"의 주인공

김서방은 추석날 쌀 팔러 갔다가 돈 없는 가난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수모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장"에서 간도가 좋다고 해서 돈벌려고 와서 금광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쳤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병신이 되어 거지로 전락된 기막힌 사연, 난전을 꾸리나 아들 공부는커녕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처지, "차중에서" 간질병환자가 연길에서 샴임을 메다가 간질이 와 큰돌 위에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 일할 수도 없고 고향에 돌아가려도 돈이 없어 차안에서 구걸하는 거지 등의 비참한 생활과 비극적인 운명은 이 시기 우리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전형화 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시기 대부분 소설들은 살기 위하여 쪽박차고 강을 건너온 이주민들의 수난의 개척사와 정착사를 사실주의적으로 그리면서 암흑한 현실 속에서 억울하게 죽고 미치고 병신 되고 거지 되고 도망하고 타락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그림으로써 강한 비극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소설들은 주인공들의 신분이 다양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이 다소 다르지만 하나같이 이주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비극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3) 두고 온 고향에 대한 망향의식

이 시기 소설문학은 또한 이역 땅에서의 힘든 생활과 함께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이 완전히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 식민지로 전락되자 나라 잃고 땅 잃은 우리 민족의 수많은 농민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조상의 뼈가 묻힌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로, 시베리아로 정처 없이 떠났다. 통계에 의하면 1931년에는 63만 명, 1945년 6월에는 216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중국 만주 땅에 밀려들어와 살고 있었다. 정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두고 온 혈육 그 자체는 이미 그들의 가슴을 핏물처럼 아픈데 낫선 이역 땅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와 모욕과 압박착취를 받을 때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 우리 이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소설문학은 수난의 현실에 대한 고발과 함께 뼈를 깎아내는 이향(離鄉) 의식과 강한 망향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테면 김창걸의 "두 번째 고향"에서 고향을 떠나면서 부모와 아내가 옷깃과 치맛자락에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는 사람들을 더욱 서럽게 한 장면, 고향별이 까마득히 잘 보이지 않자 "아, 내 고향, 나서 자란 고향, 이것으로 하직하는구나?"하고 그렇게 강직한 경찰이 두루마기로 눈물을 씻는 장면, 두만강을 건너면서 서로들 말은 없으면서도 속으로는 강심에 눈물을 떨어뜨리었고 중국 땅에 발을 내려놓으면서 "아, 고향은 인제 정말 하직이구나!"하며 두 번째로 울음을 터뜨리는 경찰이, 간도에 와서 정착한 후 저녁이면 술을 마시고 일담배를 피우면서 이제는 내지(조선에서 살던 고향 땅)와는 아주 하직이구나! 간도 백성이 되고 말겠는걸!"하고 대뇌이군 하는 경찰이 아버지, 우리는 작품의 곳곳에서 눈물겨운 실향의식과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를 느끼게 된다.

안수길의 "새벽"에서 짝 하면 자식들 앞에서 고향이야기를 하는 '나'의 아버지, 신서야의 「추석」에서 괴로울 때마다 향토적 정서가 짙은 '춘강화월야(春江花月夜)인데 추창풍우석(秋窓風雨夕)이라'를 읊조리며 눈물 흘리는 주인공 김서방 등의 형상에서 우리는 실향에 의한 한의 정서를 짙게 느낄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 이주민들의 수난의 만주 개척사를 반영한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망향의식이 소설의 밑바닥에서 여울치고 있다.

### 4) '제 2의 고향'에 대한 정착의식

재만 조선인 소설작품들은 간도 이민사회의 험악한 현실과 이주민들의 고달픈 삶, 그리고 억압과 착취에 허덕이는 이주민들의 비참한 생활모습과 비극적 운명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 보이면서 불의의 현실에 대한 고발의식, 우리 이주민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비극의식, 고국에 대한 강한 망향의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선조들이 맨주먹으로 개척한 만주에 제 2의 고향을 건설하고 이 고장에 뿌리내리려는 강한 정착의식, 그리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삶을 추구하는 강인하고 적극적인 생명의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 터를 닦으러!"로 구호화 된 "북향회"시절의 아리송한 북향건설의 의지는 안수길의 "목축기"를 거쳐 장편 "북향보"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북향보"에 앞서 "만선일보"에 도합 195 회로 연재되어 1939년 12월 1일에 완료된 현경준의 "선구시대"라는 작품에서도 만주에의 정착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바 소설은 왕덕삼이라는 한족지주와의 모순과 갈등을 통해 이주민들의 어려운 정착과정을 다루면서 이 땅에 새로운 고향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자료가 인멸되어 구체적으로 논증하기는 어려우나 제 195 회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대체 우리가 고향을 버리고 이 만주 땅으로 온건 무슨 때문이요. 고향에는 조상의 뼈가 묻혀 있구 정들었던 마을이 있는데 어째서 그 모든 것을 죄다 버리고 이 곳으로 왔소?.....우리가 이 땅으로 찾아온 건 결코 호강에 겨워서 놀이를 온 것은 아니우. 모두다 원대한 포부를 품고 넘어온 것이라면 오늘날의 험난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야 하고 고해도 건너야 하지 않겠소?"

보다시피 우의 작품에서도 만주 땅에 제 2의 고향을 건설하려는 의지, 만주에의 정착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주에의 정착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안수길의 "벼", "목축기", "북향보"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를 통해 당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정착의지--만주에 제 2의 고향건설의지를 살펴보려 한다.

"북향보"는 모두 19장으로 구성 되었는데 소설에서 主導的 인물은 정학도와 오찬구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정신적 지주는 정학도와 그의 '북향정신'이고 정학도의 가르침과 그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는 귀농한 젊은 지식인 오찬구이다.

정학도와 오찬구가 추구하는 '북향정신'이란 "우리 조부들이 피와 땀으로" 개척해 놓은 滿洲땅에 "우리들의 살기 좋은 제 2의 고향을 세워 탄탄한 민족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자손이 천대만대 진실로 새로운 고향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뿌리를 깊이 박고 백년대계를 꾸리려는" 것이다.

물론 소설은 일제의 가혹한 통치와 그에 대한 저항이 고조되어있던 만주의 복잡한 정세가 도외시된 채 바깥세계와 단절된 만주국의 울타리 안에다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려 한 부족 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작품의 갈등설정에서도 당시 사회의 주요모순인 일제와의 갈등이나 계급적, 민족적 갈등은 전혀 설정되지 않고 민족내부의 선과 악의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만주국 건국 이전의 조선인 개척사를 반영한 "벼"나 "새벽"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적인 제 관계와 전형적인 환경에 대한 폭넓은 제시나 세계와 자아의 처절한 대립 같은 것은 볼 수 없고 현실적인 제 관계를 무시한 부족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멸망을 앞두고 최후발악 하는 일제의 통치 밑에서 그들의 기관지나 다름 아닌 "만선일보"에 작품을 발표해야 했던 당시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민족적인 것도 친일적인 것도 드러내놓고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향정신'--만주에 정착하고 만주를 대대손손 살아갈 아름다운 고향으로 건설하려는 정신은 당시 재만 조선인 개척민들의 정착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이주민들이 거친 만주 땅에 첫 팥이를 박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부터 강한 의식으로 작용하면서 끈질기게 이어져왔고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만주조선인문학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북향』 지로부터 줄곧 가장 강렬한 주제의식으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처음부터 이 기본주제를 선도하고 광복직전까지 끈질기게 추구하여 온 작가 안수길은 "북향보"에서 이 기본주제를 집대성해서 보여주고 있는바 우리는 '오족협화'를 외치는 일반 문화풍토의 의관 속에 '북쪽에 새 고향건설'이라는 숨은 의의와 참뜻이 더 크지 않는 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5) 불의의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

이 시기 소설문학의 다른 한 특징은 저항의식이다. 비록 그것이 대부분은 작가 김창걸이 80 년대에 노트의 줄거리에 근거하여 회상하며 정리한 복원된 작품이지만 "소표", "낙제", "강교장", "전형", "그들이 가는 길", "기념사진" 등 작품들에서는 이주민들의 저항의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발생적인 개인적 저항도 있고 반일사상으로 무장된 의식적인 저항도 있다. 이 시기 양심 있는 작가들은 일제의 검열과 통제를 의식해 많이는 완곡하고 우회적인 수법으로 불의의 현실에 저항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하여 민족적 불행의 근원과 시대·현실의 비극문제를 파헤치면서 강렬한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 (1) 자연발생적이며 개인적인 저항의식

김창걸의 "전형"은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강한 저항정서를 반영한 작품이다. 비록 자연발생적인 반항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일제의 야만적인 통치와 민족말살정책에 대하여 야유와 풍자로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당시 우리 민족의 울분과 저항의 정서를 통쾌하게 대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설은 일제의 통치가 극도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에서까지 창씨개명을 강요하던 역사적 사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고 당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비분과 저주를 대변해 주었다는 데도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소설은 이 시기 다른 작품들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풍자와 야유의 수법을 취하고 있는데 일제의 검열과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직접적인 거부의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회적인 수법을 통하여 그 불의의 현실을 고발하고 질타하고 있다.

이밖에 빛 때문에 나이 많은 윤주사에게 200 원에 팔려가야 하는 처지에 이르자 이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야밤 도주하는 "암야"의 명순이와 고분이, 원주민들의 적대시와 습격에 맞받아 싸우고 중국관헌의 총 뿌리 앞에서 대항해 나서는 "벼"에서의 이주농민들 등 이 시기 소설작품들에서는 일제의 만주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식을 여러 모로 보여주고 있다.

### (2)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의식

이 시기 소설들 가운데는 일제의 가혹한 통치와 압박 속에서 싹터난 자연발생적인 개인적인 저항의식을 보여준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전파와 함께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조직적인 저항으로 나가는 긍정적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도 있다.

소설 "강교장"(1942)는 만주국 건립 후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우리 민족이 세운 학교들이 폐쇄되는 상황을 그리면서 민족교육의 좌절과 수난을 고발하고 일제가 통치하는 현 사회는 망할 놈의 세상이란 우리 민족의 저항정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의식적이고 이념적으로 무장된 저항투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김창걸의 "두 번째 고향"은 주인공 경찰이가 살길을 찾아 간도 땅에 들어오게 된 눈물겨운 과정, 정착과정에 겪은 모진 시련과 수모, 망국 노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학교생활과 투쟁실천을 거쳐 항일투사로 성장한 노정을 생동하게 그리고 있고 김창걸은 소설 "소표"에서 주인공 영삼이가 불의의 만주현실과 일제, 지주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흥범도 부대로 가려는 의지를 통하여 조직적이고 선명한 반항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6) 만주현실에 대한 순응의식

재만 작가들의 경우, 당시 시대와 민족, 민중의 대표적인 의식을 체현하지 못하고 불의의 현실에 순응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 시대에 순응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삶을 더욱 완벽하게 꾸미려고 노력하면서 만주국 시책에 호응해 나선 작가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소설문학 가운데는 만주국 현실과 국책에 순응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 일상적 생활로의 순응을 보여준 작품으로 안수길의 "토성", "목축기", "북향보", 한찬숙의 "초원" 등을 들 수 있고 친일행위로서의 순응을 보여준 작품으로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 등을 꼽을 수 있다.

### (1) 일상적 삶으로서의 순응

안수길의 "토성"은 '9.18'사변 후 패잔병과 호적들의 습격으로 인한 조선인 사회의 혼란상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 토성을 쌓고 자위대를 조직하는 조선인 부락을 무대로, 주인공 명수와 그의 이복형 학수와 의 갈등을 엮고 있는데 소설에서 주인공 명수 내는 '만주국'의 시책에 순응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한다.

안수길의 "목축기"는 만주국 건국 후를 시대배경으로 하여, 사립중학교 농업 교원이었던 찬호가 열심히 근무하던 교직을 그만두고 교직에서 용퇴한 교원들과 함께 와우산기슭에 목장을 세워 양돈사업에 열중하면서 '보람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안수길은 만주국 건국이전의 작품들, 이를테면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면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수전을 만들고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을 그린 "벼"나 "새벽"과는 달리 "목축기"에서는 만주국 당국의 축산업 발전시책에 따라 목축 또는 유축농업에 종사하고 목장경영과 함께 농민도장의 설립을 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 찬호의 형상이 당시 만주국 당국의 축산업 발전시책에 따르는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찬호의 성격에는 만주 땅에 뿌리를 내려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개척민들의 의지 즉 여기에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제 2의 고향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지식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이 굳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목축기"는 이중적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 역시 "만주국이 마련해준 현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즉 일제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승인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 이른바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려고 한 작가의 현실순응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찬숙의 단편 "초원"(재만조선인작품집 '썩트는 대지'에 수록됨)은 조선청년 임봉익과 몽고처녀 마루도의 사랑이야기를 엮으면서 몽고의 축산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임봉익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소설은 만주 조선인과 몽고족간의 애정을 이야기 선으로 하여 마루도의 진지하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감동적으로 펼쳐 보이면서 몽고 특유의 자연환경과 몽골민족의 풍속 및 몽고인들의 호방한 성격 등을 비교적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배경과 연관시켜 고찰해보면 주인공 봉익이는 '만주국'의 여러 가지 시책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작품도 일제가 만주국 정부를 통하여 내세운, 조선족은 물론 만주족, 몽고족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고 화합하여 대동아의 평화와 영화를 실현하자는 '오족협화'정신에 순응한 것으로 된다.

### (2) 반민족적 부일 행위로서의 순응



이 시기 소설 작품들 가운데는 현존하는 만주현실에 순응하고 일제의 만주국 시책에 부응하는 작품들이 창작되었는가 하면 친일적인 성격을 띤 작품도 일부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을 들 수 있다.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은 15 세에 공비(共匪)들에게 잡혀가 10 여 년이나 산 속 생활을 하면서 바깥세계와 점차 멀어져 거의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가 일제의 토벌군에 의해 다리에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힌 후 화자인 '나'의 도움으로 이른바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 즉 유격대원의 사상전향 혹은 귀순의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서 친일적인 내용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7) 애정의식 및 기타

이 시기 소설들 가운데는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만주 이주사와 개척사를 기본주제로 다룬 외에 애정, 세대 등 기타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일제의 통제와 단속이 심해지면서 현실에 대한 참여와 고발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작가들은 '민감한 영역'을 외면하고 애정이야기나 생활세대를 다루었는데 그들은 이런 '전향'으로 당국에 응부하면서 자기의 주체의식과 민족성향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작가들의 이런 전향은 오히려 양심을 어기고 일제에 영합하는 글이나 만주국 시책에 따른 글을 쓰기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며 또한 비록 흔히 보는 연애 이야기나 세대 적인 생활이야기지만 사람들에게 음미할 공간을 주고 있다.

현경준의 "길"은 만주 땅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영식이와 술집에서 일하는 춘옥이와의 사랑이야기를 엮으면서 생활난으로 사회의 최하층에서 허덕이고 고민하는 이주민들의 비극적 운명을 그리고 있다.

소설은 어쩔 수 없이 술집에서 웃음을 팔며 밑바닥생활을 하는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눈물겨운 정경과 그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세습에 메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성격을 펼쳐 보이고 있다.

안수길의 단편 "함지쟁이 영감"은 주인공의 어처구니없는 짝사랑과 그 실연의 충격을 다룬 짧은 단편이다.

소설은 섬세한 필치로 함지 장이 영감의 불쌍한 처지와 순박하면서도 우둔한 성격, 우스꽝스러운 일거일동을 생동감 있게 펼쳐 보였는데 '북향'지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수작이라 할 수 있다.

김창걸의 "천사와 요술"은 삼각 연애를 다룬 재치 있는 연애소설이다. 소설은 흔히 볼 수 있는 연애 이야기이지만 주인공의 빠져린 참회와 깨달음을 통해 불쌍한 아내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가 꽤 감동적이다.

## 3. 해방전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와 한계성

### 1) 만주 이주사와 정착사로서의 증언문학

이 시기 소설문학은 무엇보다 나라 잃고 땅 잃은 우리 겨레가 낯선 만주 땅에 흘러 들어와 온갖 수모와 압박과 착취를 받으면서 살아온 각양각색의 이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운명, 수난의

이주사와 정착사, 그들의 고된 삶의 현장을 다각도로 포착하여 생동감 있게 그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만주 이주사와 정착사로서의 증언역할을 했다는데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들테면 안수길의 "새벽"은 만주국이전 개척민들의 참담한 수난의 개척사를 그리어 개척민문학의 장을 열었고 "벼"는 이주민들이 만주의 험악하고 혼란한 사회에 중국 관현, 원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 속에서 갖은 좌절과 목숨의 대가로 정착의 공간을 굳혀 가는 그들의 끈질긴 정착의지--개척민의 정착사를 보여주었고 안수길의 "북향보"는 만주에 뿌리내려 제 2의 고향을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만주정착의지와 리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주초기 지팡주의 약탈과 박해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영위해가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주민들의 생활을 그린 김창걸의 "무빈골 전설", 간도 땅에 흘러 들어간 가지각색 인간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준 "장", 낯선 이국 땅에서 자기가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실업 당한 지식인이 고뇌와 타락을 보여준 "설", 빈궁에 허덕이는 간도이주민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쓰고있는 "泥醉", '황도낙토'의 허상아래 만주국의 어두운 현실에 대하여 좌절의 고배를 마신 지식청년의 고뇌를 쓴 "제화", "황도낙토"를 부르짖는 만주국에서 정치적 권리도, 인간적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는 조선인 농민의 고뇌와 애수를 묘사한 "추석" 등 이 시기 대부분 소설들은 만주에서의 이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정서 등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인물들의 행위와 삶의 행적을 통하여 사실주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만주생활을 증언하는 중요한 문헌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2)이주민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끈질긴 추구

이 시기 소설문학은 일제 식민통치하의 수난의 이주사와 정착사를 사실주의적으로 펼쳐 보여 중요한 문헌적, 증언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이주민들의 사상, 정서, 회노애락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면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헤치고 진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민족 만주 이주와 정착시기의 정신사적역할을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느끼는 실향의식과 거칠은 만주 땅에서 느끼는 망향의식, 망국노가 되고 이국민이 되고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 멸시와 수모를 당해야 하는 운명에서 오는 한의 정서, 부패하고 혼란하고 암흑한 만주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및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순응의식, 낯선 이국 땅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제 2의 고향을 건설하려는 강한 정착의지와 생명의식,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반항심, 나라 잃고 망국노가 된 울분과 고뇌와 절망 등 그야말로 이 시기 우리 이주민들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간들의 복잡하고 다층차적인 정신세계를 끈질기게 파헤치고 생생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이주민시기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고국의 우리 민족이나 중국 본토의 사람들은 느낄 수 없었던 이주민들의 독특한 정신세계인 것이다.

## 3) 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한 진실한 생활묘사

이 시기 재만조선인 소설문학의 뚜렷한 특징의 하나가 창작태도와 방법에서의 사실주의이다. 사실주의란 생활을 그 본래의 모양대로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전형화의 방법으로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창작방법이다. 사실주의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생활을 그 본래의 모양대로 진실하게 그리는 것이다. 이 시기 대부분 작가들은 우선 일제의 식민지통치말기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만주라는 특정된 지역적 공간을 무대로 설정하고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수난의 역사와 그들의 세태적인 생활, 정서 등 그들의 다종다양한 삶의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만주조선인 소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향"지에 실린 소설작품으로부터 "만선일보"에 실린 작품들을 비롯하여 대부분 소설들은 사실주의적 필치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수난의 발자취를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하여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수난의 역사와 그들의 세태적인 생활, 정서를 독자들에게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있는바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역사의 증언역할도 훌륭히 하고있다. 물론 일제의 파쇼 통치와 통제로 언론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현실생활을 우회적으로 반영한다던가 생활의 본질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한계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생활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사실주의란 세부적인 진실성외에 전형적 상황아래서의 전형적 인물의 진실한 재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 소설문학은 또한 일제식민지통치하에 만주로 이주한 우리 민족의 다종다양한 인간들의 형상창조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현실을 제시하고있음을 볼 수 있다.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기고 눈물을 뿌리며 중국에 이주해왔다가 일제, 중국관헌, 마적, 얼퇴놈 등에 의해 2중 3중의 착취와 박해와 멸시를 받으며 죽고 미치고 유랑하는 인물들인 "무빈골전설"에서의 김서방 내외, "새벽"에서의 '나'의 일가, "추석"에서의 김서방 등, 가난 때문에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간도주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불합리한 현실에 저항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암야"에서의 명손이와 고분이, 살길을 찾아 만주에 들어오나 거기서도 가는 곳마다 멸시와 억압을 받아야 하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 단연히 투쟁의 길에 나서는 "두번째 고향"에서의 경철이, 나라와 조국을 잃어버린 암담한 현실에서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타락하는 인간들인 "제화"에서의 '나', "청궁"에서의 강영과 등, 만주의 거칠은 벌판을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원각촌"의 역쇠, 같은 민족이지만 얼퇴놈이 되어 이주민들에게 갖은 고통을 안겨주는 악종들인 "원각촌"에서의 한인상, "새벽"에서의 박치만 등, 이 땅에 새로운 고향을 건설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헌신적으로 실천해 가는 "북향보"에서의 정학도와 오찬구 등, 이 시기 소설들은 이런 다양한 형상들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 이주민들의 운명과 삶의 역사를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면서 이러한 인간적 비극을 조성한 부패하고 암흑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작가들의 현실에 충실하려는 진지한 태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려는 추구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시기 소설문학창작은 사실주의창작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는바 작가들은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우리 이주민들의 수난의 역사를 생동한 화폭으로 진실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이 시기 문단을 아름답게 장식하였고 그 이후 조선족문단의 사실주의문학발전에 좋은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다.

#### 4)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통한 소설창작

30년대 이전의 재만조선인 문학은 개별적인 작가들의 작품활동에 의하여 펼쳐진 문학이라면 30년대 이후의 문학은 우리 민족 작가들의 문단적인 활동에 의하여 펼쳐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에서 이주민들에 의하여 문단적인 문학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만주사변(1931)과 만주국 건국(1932)이후 조선반도의 문화인, 지식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동인문학단체인 "북향회"를 조직하여 문학활동을 벌이고 잡지 "북향"을 발간하면서부터인데 이때로부터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만주생활공간을 무대로 문단적이고 조직적인 재만조선인 문학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1930년대 이전에 개별적 망명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되어 만주이외의 중국문단이나 한반도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많이는 조선인의 시각에서 중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감수나 정서 또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 나라의 운명에 대한 우려, 일제에 대한 분노 또는 한국적인 삶을 그린 작품들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적인 시각에서 그린 작품이었고 1930년대 이후 재만조선인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재만작품들은 대부분 만주 땅에 발을 붙인 이주민의 시각에서 그들의 삶과 운명을 그린,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주민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재만조선인 작가들은 조선국내의 문학과는 구별되는 재만조선인 문학형성을 위하여 의식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바 이들은 재만조선인소설집 "씩트는 대지"를 펴내면서 현지작가의 현지취재,

현지작품, 현지발표의 '현지주의'원칙을 내세웠으며 염상섭, 신영철, 최기정 등은 이 소설집을 두고 반세기 남짓한 역사를 가진 만주개척사의 문학적 형상화이며 개척민들의 운명과 정서를 반영함으로써 재래의 문학에서는 볼 수 없는 대륙적인 풍격을 볼 수 있다고 극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재만조선인문학은 살길을 찾아 만주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고된 삶의 현장과 만주국 건립 후의 다양한 현실대응양상을 다각도로 포착하여 부동한 시각과 입장에서 다루면서 조선국내나 중국문단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재만조선인문학을 형성한 것이다.

## 5) 일제말기 민족문학의 보존과 발전

재만조선인 작가들은 1940년대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국어로 광복 전까지 만주이주민들의 생활을 제재로 소설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함으로써 이 시기 민족문학의 공백을 메우고 민족문학을 발전시켰다는데 마멸할 수 없는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언어의 상실은 곧 민족문학자체의 상실을 의미한다. 일제통치말기로 접어들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적탄압은 날로 가혹해지고 민족문화말살정책이 더욱 가심해졌다. 두 차례에 걸친 카프작가들의 검거, 투옥에 이어 1941년에는 조선의 2대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문장", "인문평론" 등 두 월간지가 폐간되고 조선국내에서는 창씨개명과 함께 한글로 창작한 작품을 발표할 자리가 없었고 발표하려면 일본어로 창작하고 일제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했다. 그리하여 대다수 카프계열의 작가들과 민족주의계열의 작가들이 창작을 그만두거나 침묵을 지키는 태도를 취했다. 물론 일제에 아부하면서 작품을 쓴 작가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토에서의 문학이 일제에 의해 유린당하여 가장 암흑하던 시기 바로 일제의 손아귀에 있는 만주 땅에서 민족문학의 생명은 끈질기게 이어져갔던 것이다.

물론 만주는 조선보다는 얼마간 자유가 남아있는 땅이었지만 만주에서도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어창작을 권장했지만 재만조선인 작가들은 끝까지 한글로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수난의 생활을 제재로 끈질기게 창작활동을 하여 광복 전까지 발표함으로써 민족문학을 보존·발전시켰고 민족문학이 공백기에 처할 뻔했던 우리 민족 문학의 맥을 이어놓았는바 이 시기의 문학은 일제 식민지 시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학유산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문학은 비록 일제의 괴뢰정부, 만주국의 국책아래 전개되었고 일부 작품은 일본 관동군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만선일보"를 통해 발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민족의 존망과 겨레들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우리 이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렸다. 그들은 만주에서 조선인문학이 존재하고 문단을 탄생시킬 수 있으려면 만주국 건국정신, 즉 협화이념과 같은 정책홍보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러한 한계를 감수하면서도 조선인 특유의 생존방식과 투쟁, 삶의 역사적 의미 등 조선인다운 문학적 영역을 가꾸어갔다. 그리하여 이 시기 소설문학은 일제통치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족문학을 보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그 이후의 조선족문학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다.

"북향" 지를 통해 만주조선인문학의 첫 선을 보인 우리 소설작품들은 "만선일보" 문예란을 거쳐 종합소설집 "싹트는 대지"와 개인소설집 "복원"을 펴내고 안수길의 "북향보"로 총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들 소설이 하나같이 민족정신으로 일관된 투철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설들은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정서와 의지, 민족의 운명을 건설하게 다룬 가치 있는 작품들이다.

이 시기 대부분 소설문학들은 조선민족의 수난의 년대에 나라 잃고 고향을 떠나 낯선 만주 땅에 들어와 발을 붙이고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고난의 력사, 일제, 봉건군벌, 관헌의 야만적인 탄압과 박해, 약탈 지어는 고통과 죽음을 강요당하면서도 강한 생활의욕으로 2중 3중의 악랄한 환경을 뚫고 나가면서 삶의 터전을 닦아나가는 이주민들의 생활을 광복직전까지 모국어로 형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시기 우리 민족 이주민들의 수난의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남겨놓았고 이후의 문학발전을 위해 좋은 기초를 닦아주었다.

따라서 김창걸, 안수길 등으로 대표되는 후기의 소설문학들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생활반영의 폭과 다양한 인간형상의 창조, 섬세한 세부묘사와 생동한 심리묘사, 사건전개의 극성 또는 희극성, 탄탄한 구성한 다양한 예술수법의 운용 등으로 어느 정도 성숙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소설문학은 말 그대로 '새터에 돌아난 어린 싹들'로 미숙한 점도 많지만 우리의 소설문학은 그 맹아에서 싹트고 자라나 대가 굵어진 것이다.

## 6) 재만조선인문학의 한계성

일제의 '만주'침략과 위만주국 건립, 그리고 '만주'에 대한 일제의 통치가 가심해질수록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현실생활과 당시 우리 이주민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소설의 발자취를 추적하면서도 볼 수 있지만 소설이 창작된 년대가 모두 일제가 침략하고 통치하던 시대로서 이 시기 주요 모순은 만주에 사는 각 민족과 일제와의 모순이었다. 그러나 만주국 건립 후의 소설들에서는 이 주요모순과 투쟁을 직접 반영한 작품은 한편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박계주의 "처녀지", 김창걸의 "강교장", "전형" 등 작품들에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반영하고 있고 대부분 작품들은 일제와의 모순갈등을 회피하고 많이 민족내부의 모순갈등으로 처리되는가 하면 이주민들의 수난의 만주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비극적인 생활과 운명의 원인을 어떤 우연적인 계기나 본인들의 실수에서 찾고 있다. 그 결과 소설들이 문제의 본질과 시대정신을 깊이 제시하지 못하고 전형성이 부족하다. 특히 30년대 말 40년대 초 일제의 통치가 더욱 가심해지자 일부 작가들은 절실한 현실문제를 떠나 일상적인 애정이야기나 엽기적인 이야기들을 엮기도 하고 일부 작가들은 낱말이 가중되고 있는 대다수 이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고 만주의 현실이나 시책을 긍정적으로, 또는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을 쓰기도 했다. '산속' 생활을 한 여인을 귀화시키려는 노력과 그녀의 사회복귀를 그린다면가 미개한 몽골로 가 목축지도를 한다는 등, 그리고 이런 작품에 가끔씩 '민족협화', '왕도낙토' 운운을 볼 수 있고 만주국 시책에 관한 내용이 가끔씩 나오며 반일투사를 인간미를 상실한 야인으로, 공산당을 비적으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만주국이 세운 기존질서와 시책에 부응하려는 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멸망을 앞둔 일제가 최후발악을 하면서 민족동화, 민족문화말살 정책을 강요하고 '만주'이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통제하고 통치하던 특수한 환경에서 마음속의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특히 일제의 특수한 검열 때문에 더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대현실을 정확하게 투철하게 파악하지 못한 작가의 세계관적 제한성도 있다. 따라서 일제의 위만주국 정책에의 순응이나 친일사상에는 작가의 입장의 불견정성과 의지의 나약성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시대현실을 정확하고 투철하게 파악하지 못한 작가의 세계관적 제한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일부 작품들은 이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역사적 깊이에서 보여주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성을 예리하게 파헤치지 못하고 현실적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한 부족점들도 있다. 그리고 초기의 일부 작품들은 예술 면에서 슈제트 구성이 비교적 단조롭고 인물형상이 평면화 되어 있는 등 미숙한 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한계성과 미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소설문학은 우리 이주민들의 만주생활을 증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일제통치하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족문학을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이 시기의 소설문학은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